나팔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

(계8:1~13)

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팔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팔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내용은,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근데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인을 하나씩 떼나갈 때마다 일들이 터졌어요.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뗄 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하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접하게 되는데, 여전히 앞의 인을 뗄 때 나타났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이렇게 네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데 결국 첫 번째 나팔은 땅에 쏟아져서 땅과 수풀의 3분의 1이 재앙 속에 파묻히게 되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3분의 1일 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강과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샘의 3분의 1이 또 해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중의 3분의 1이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중에서 땅과 바다와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샘, 그리고 인간의 지상에서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러한 삶의 터전이 되는 자연환경에 네 가지 측면으로 재앙이 임하는데 삼분의 1씩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용어들이 다 어렵고, 예를 들면 피 섞인 우박,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하나하나를 누가 감히 나서서 ‘정확하게 내가 해석한 것이 정답이다’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일곱 나팔 재앙과 연관 지어서 통일된 의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실마리가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1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린양이 지금 떼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양이 떼신다는 것은 어린양과 연관성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이 고요하더라, 하늘의 반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근데 하여간 일정시간 침묵이 하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바가 뭘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침묵과 나팔은 사실은 서로 상치되는 단어입니다, 그 내용이.
나팔은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요함이라는 것은 소리가 없는 겁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이 엮어지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으로부터 일곱 나팔의 재앙의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고, 일곱 나팔의 의미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하나의 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요함과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인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고요함과 나팔이라는 것이 왜 보완관계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가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습니다.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고요함입니다, 침묵입니다.
만약에 누가 갓난쟁이들을 두셋 데리고 왔는데, 이 갓난쟁이가 악을 쓰면서 울어댄다면, 오케스트라의 그 미세하고 아름다운 소리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소리는 나고 있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의 퍼포먼스가 모든 관람객에게 다 잘 보이게 하려고 무대를 높직하게 만들잖아요? 연기가 보이기 위해 무대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소리에도 무대가 필요합니다.
미세한 소리까지 잘 들릴 수 있게 하는 무대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침묵이고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고요함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세상에 주어지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재앙의 성격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얘깁니다.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재앙으로서 재앙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팔소리와 같이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굵직하고 일관된 하나의 맥을 잡고 나면, 우리가 비록 첫째 나팔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기 위해 동원된 단어 하나하나가 상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를지라도, 큰 오류 없이 이 계시록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이 음성의 무대가 된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보면, 이제 마치 커튼이 가려져 있다가 '딩동댕~ 이제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하면서 커튼이 올라가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다고 한 것처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원들이 있는 무대 위와 청중이 있는 전체 공연장에 고요함이 쫙 흐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소리가 들릴 거니까 그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침 삼키는 소리까지 죽이고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자의 지휘봉이 움직이면서 오케스트라에서 소리가 빵 빵! 하며 나오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지금 소리가 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을 피우면서 아름다운 향기와 더불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면, 성도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늘에 침묵이 흐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하늘 전체를 향하여 "조용히 해! 지금 쟤가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들어야 되니까 조용히 해!" 하는 침묵이 명령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이 보여 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고요를 명하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면서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도 놓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불과 함께 올라간 성도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모양이 5절에 나오는 겁니다.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음성과 함께 이 땅에 임재하시는 모양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부터 불어지는 일곱 나팔은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담은 다음에 땅에 쏟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음성으로 나팔로 나타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나팔소리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서 지구 표면의 3분의 1이 재앙 가운데에 처한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고요함과 나팔이 이렇게 음성과 소리의 들음에 연관된 사건이라는 걸 또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하면, 여섯째 나팔까지 다 불어지고 재앙이 표현된 다음에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팔을 불 때마다 생기는 모든 재앙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을 회개로 권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건들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팔소리와 고요함이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 듣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지금 네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듣지 않는 자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3분의 1이 재앙에 덮인다는 얘기와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매치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분의 1은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뜻하는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정수입니다, 결정수.
무엇을 결정하는 겁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결정할 때 2라는 숫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있으면 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명 중에 두 명이 투표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다수결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게 3분의 1에 내린다는 얘기는 지구표면의 3분의 1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요한이 마음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자연적인 환경에 내릴 재앙인 것은 맞지만, 3분의 1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3분의 1의 표면이 덮인다는 것이 아니고 다수결의 의미에서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재앙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3분의 2,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이다, 다수결에 의해서 3명 중에서 두 명이 찬성하면 그쪽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쪽을 보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결정한다는 얘기에요.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채택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의견과는 다른 반대의 의견을 참이라고 채택한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 자체는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재앙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이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말해 지구 표면의 일억 분의 일 정도 되는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터져서 옆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그 사건 속에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채택하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채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 속에 담긴 의미를 늘 기각시키고 부결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13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은,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settle down' dow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카타'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동사인데, 이 접두사가 붙어서 settle down,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정착해서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 지구, 이 땅, 더 크게는 해와 달을 포함하는 우주가 다 땅의 차원이에요, 물리적인 차원 시간과 공간의 차원입니다.
인을 뗄 때와 마찬가지로 연관 지어 생각하면, 사탄의 세 개의 지배체제가 있었잖아요?

세 개의 지배체제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어떡하든지 기쁨과 평강과 인생의 성취를 이 땅에서 찾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지배체제의 핵심의도였습니다.
땅에 근거를 두고 기쁨을 캐내려 하고, 땅에서 평강과 성취를 얻으려 하는 겁니다.
이게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땅에 바다에 그리고 먹는 물, 해와 달과 천체와 기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후는 태양이 많이 비치면 사막화가 돼가고 너무 적게 비치면 햇빛이 모자라 곡식들이 익지를 않고.
이렇게 땅에서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연적인 요소들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으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땅에 마음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마음 붙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땅에 마음 붙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세 명이 결정할 때 두 명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되는 다수결처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믿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가 개선하고 우리가 복귀하고 재앙이 주어져도 우리가 점점 더 발전시키면 이 땅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굳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사장을 생각해보면, 굴착기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왕왕 거리고 다다다다 하며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팔 하나를 분다고 나팔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공사장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많은 생각들로 공사장 같은 마음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보내시고 뜻으로 임재하시기 전에 곳곳에 지진이라든지 자연피해,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전에 제단에서 불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하늘나라에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고나서 사도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의 세계 속에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해낸 것이 뭐냐 하면 번제단과 같은 제단의 불이에요.

이 번제단의 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둘이 성소에 붙이는 향불을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 두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불은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하려면 꼭 번제단의 불로 태우는 역사가 있고서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번제단이 뭡니까? 나의 죄인 됨을 다 빨아들인 양과 송아지가 죽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죄인 됨이 왜 생긴 겁니까? 이 땅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과녁을 빗나가버려서 사는 삶이 죄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하겠다는 소원을 갖고, 땅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라고 엮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어느 기도도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다 기쁨과 평강과 성취와 연관돼서 모든 소원과 계획과 뜻, 모든 게 다 죄악이기 때문에 다 불타버려야 기도가 가능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단의 불로 살라져야, 이 세상에서 얻으려 하는 기쁨과 평강과 성취를 소원하는 공사장같이 시끄러운 내 마음에 고요가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마음에 이 번제단의 불을 끌어들여서 마음에 고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 이곳저곳에서 땅에서 마음 붙이고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연환경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번제단의 불로 우리를 사르지 않고 고요함을 이루지 않고 있어서 이 나팔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음성을 재앙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계속 땅에다가 마음의 배를 붙이고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지금 요한의 시대 때에 앞으로 보여 질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재앙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사고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없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고일지라도, 그 작은 사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마치 오케스트라의 공연장에 완벽한 고요가 있으면서 아주 미세하게 연주되는 바이올린의 낮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재앙에서도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시끄러운 공사장이 돼놓으니까 하나님이 큰 사고, 세월호 같은 큰 사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나서 2, 3천 명씩 죽는 사고가 일어나도 그 시간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시 다 잊어버리고 땅에 마음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의 제단에 불이 자꾸 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 된 나를 태워 죽이는 제단에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 제단의 불이 뭐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에 마음 붙이고 살아가려는 내가 계속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짱짱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소리도 들릴 수 있으려면 고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니까 고요함이 없고, 고요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아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마음은 땅을 향할 수밖에 없고, 땅에 마음의 배를 붙이고 살아가는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화, 화, 화로다!' 트리플 화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점을 극복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고요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고, 십사만 사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어코 못 듣고 사탄의 지배체제 아래서 멸망으로 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떡하든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마음을 붙이려는 죄인 됨의 속성을 불태워버리고, 공사장 같은 마음에 고요를 찾아오게 하는 시간들을 맞이함으로써 이 음성을 들어야만 되겠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